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월18일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월18일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장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지난해보다 더 멋있어진것 같다고, 모든 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꾸린 결과 세계적수준의 기계제품들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개발생산할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방대한 개건공사가 비록 어려웠지만 마음먹고 달라붙어 꾸러놓기를 정말 잘했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월18일기계종합공장의 곳곳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체취가 뜨겁게 어리어있다고 하시면서 공장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어리어있는 일터, 우리 나라 기계제작공업의 만아들공장, 중추공장, 핵심공장에서 일한다는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생산정상화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가공, 조립을 비롯한 여러 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과 기계제품의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월18일기계종합공장을 21세기 산업발전의 추세에 맞게 현대화한 결과 공장의 생산 및 관리운영사업에서 지난 시기에는 상상할수도 없었던 놀라운 전변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의 과학화, 정보화, 자동화, 무인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고 유연생산체계가 확립됨으로써 로력을 극력 절약하면서도 생산주기를 단축하고 생산량을 늘이였을뿐만아니라 질제고사업에서 자랑할만 한 성과가 이룩되였다고 하시였다.



공장서 계열생산하고있는 기계제품들의 성능이 지난 시기에 비해 훨씬 좋아졌다고 하시면서 질적지표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제품들과 당당히 경쟁할수 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특히 1월18일기계종합공장서 해당단위와 합심하여 새 기계제품들을 개발제작하였는데 나라의 기계제작공업발전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머리로 설계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기계제품이어서 불수록 소중하고 귀중한 재부처럼 느껴진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우리 식의 현대적인 기계제품들을 만들어내는 사업은 민족적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궁전과도 같은 작업장들에서 울리는 생산중산의 동음을 들으니 기분이 좋다고 하시면서 완전히 국산화된 세계적수준의 기계제품들을 개발생산하고있는 공장의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월18일기계종합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게 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울데 대한 문제, 현대화된 검측공정을 더 잘 꾸러놓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CNC설비들을 다루는 모든 기대공들이 컴퓨터에 정통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릴데 대한 문제 등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날 공장의 종합편의시설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난해 종합편의시설을 돌아보지 못했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보자고 하시면서 체육장, 수영장, 식사실, 목욕실, 미용실을 비롯한 종합편의시설의 여러곳에 들리시여 운영실태를 세심히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종합편의시설이 정말 훌륭하다고, 이런 시설은 로동계급의 세상인 우리 나라에서만 일떠설수 있다고 하시면서 종합편의시설의 일군들과 봉사자들이 봉사와 관리운영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당의 사랑이 로동계급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장종업원들과 가족들이 도시부럽지 않은 문화생활조건을 마련해준 당의 은덕이 고마워 눈시울을 적시고있다는 일군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모두 좋아한다니 자신께서도 정말 기쁘다고, 로동계급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 그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마음껏 누리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월18일기계종합공장의 로동계급이 만리마를 탄 기세로 힘차게 내달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최첨단기계제품 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서 새로 개발제작한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계열생산에 들어갈데 대한 지시와 앞으로 수행해야 할 전투적과업을 주시고 그를 위한 대책들을 직접 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월18일기계종합공장의 로동계급이 만리마를 탄 기세로 힘차게 내달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최첨단기계제품 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서 새로 개발제작한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계열생산에 들어갈데 대한 지시와 앞으로 수행해야 할 전투적과업을 주시고 그를 위한 대책들을 직접 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월18일기계종합공장의 로동계급이 만리마를 탄 기세로 힘차게 내달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최첨단기계제품 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서 새로 개발제작한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계열생산에 들어갈데 대한 지시와 앞으로 수행해야 할 전투적과업을 주시고 그를 위한 대책들을 직접 세워주시였다.

본사기자



시 묶음

해방의 8.15를 통일의 8.15로

겨레여 그 빛발따라

김 윤 식

앞길을 밝혀주는 빛발 없다면
인생의 먼길 갈수 없듯이
분렬의 먹장구름 가시여
통일의 앞길 밝혀주는 눈부신 빛발
그 빛발이 우리 겨레에게 있어라

영광스러운 당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원수님 펼쳐주신 통일의 대강이여
오늘도 가슴설레이게 하는
5월의 열광 크나큰 격정은
겨레의 심장에 높뛰는 세찬 박동이다

눈앞이 환히 트이고
가슴이 넓어지는 그 경륜에
온넋이 끌리어 겨레가 더친 감발
하시느 말씀말씀 그 구절구절을
심장속에 뜨겁게 새겨안은 우리 겨레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참뜻
겨레의 가슴에 그이 거목으로 세워주셨고
통일의 동반자로 손잡고 열어가

화해와 단합의 넓은 길도
그이 겨레앞에 열어주시었거니

통일의 길에 기치를 들어야 한다면
그이 추켜드신 자주의 기치는
겨레가 높이 받들어야 할 운명의 기치
분렬의 첩첩준령 넘어야 할 힘 있어야 한다면
그이 밝혀주신 민족대단결의 리념은
겨레의 가슴에 높뛰는 억세인 힘

통일의 그 진리가 뿌려주는 빛줄기
겨레가 힘차게 노도쳐 진군해갈
자주통일의 대통령로 곧추 뻗쳐있으니
무엇이 두려우랴 무엇을 주저하랴
겨레는 통일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간다

아, 겨레를 통일로 이끌어나가시며
민족의 진두에 서계시는 김정원수님
그이가 계셔 그이를 모셔
눈부시게 솟아오를 민족의 밝은 앞날
통일강국의 래일이 겨레를 부른다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기상으로

리 송 일

8월은 해방의 감격 노래하는데
가슴친다, 분렬의 절통함이
세월은 70년을 더 넘어섰는데
우리 겨레 언제까지 갈라져 살아야만 하는가

시련과 난관이 겹겹이 막아서도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리라
산악같은 맹세 용솟음치는 가슴에
더 깊이 새겨진다, 김정원수님의 말씀

—조국통일의 역사적대업을 이룩하자면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 맥박치는
사상과 정신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듣는가, 겨레여
철세위인의 불타는 통일의지
우리 심장에 새기자
통일의 신념으로

나라의 독립을 못할바에야
살아서 무엇하리
몸이 찢겨 가루되어도...
그 불굴의 정신
삼천리에 해방을 안아왔고

대를 이어 싸워서도

기어이 양춘을 불러오려는
그 불굴의 투지
사회주의지상락원 펼치었거니

아 년대와 세기를 이어
승리와 영광에로 이 조선 추동해온
신념의 노래, 투쟁의 노래
자주통일의 진군가로
더 힘차게 울려 퍼진다

신심은 넘치고
의지는 용솟음친다
푸른 절개 굽힘없는 소나무처럼
통일의 새봄 불러 겨레여 일떠서자

나라의 통일을 못한다면
우리 백번 살아 무엇하랴
자주와 단합의 노래 불려도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기상으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해도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기상으로

미제와 앞잡이를 쳐물어내고
북과 남 우리 겨레
백두와 한나에 높이 올라
동해가 굽고 산이 동하게
목청껏 불러보자 통일만세를

8월의 쑥섬은 말한다

김 송 립

바로 예가 아닌가
1948년 5월 수령님 모시고
남녘의 각계 인사들 모여앉았던 역사의 땅
생각깊은 걸음걸음
8월의 이 쑥섬에 자욱자욱 읊기노라

해방조국에 질어가던 분렬의 비운
단합된 민족의 힘으로 가서버리자
수령님의 뜻 받들어 그 리념에 넋이 끌려
그날의 남녘인사들
애국의 맹세로 가슴불태웠던 이곳

아, 민족대단결이자 조국통일이어서
그날처럼 뜻깊은 8.15에
통일대회합 펼치고 우리 함께 모여앉자고
우리 얼마나 뜨겁게 호소하였던가

만나면 통일의 열기로 가슴끓이며
진정을 나누고 심금 터놓을수 있는
우리는 한피줄을 이룬 하나의 겨레
정견과 신앙 주의주장을 뛰어넘어
민족의 숙원 통일을 바라는 마음으로
뜻과 맘 합칠수 있거니

그 누가 산천은 말이 없다 했는가
애국애족의 마음 합쳐지는것 그리도 두
려워
칼을 물고 날뛴 분렬주의자들

기어이 우리 만나자

김 영 일

얼마나 애라게 고대해왔던가
얼마나 간절히 기다려왔던가
뜻깊은 해방의 날 8.15에
북과 남, 해외가 한자리에 모이는
전민족적인 통일의 대회합을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민족의 운명 걱정된다면
외면하고 거부할 리유도 없는
너무도 정당한 이 제안
삼천리가 끓었고 온 겨레가 환호했어라

허나 민족대회합의 길
가로막아나선 반통일세력
통일의 불같은 열망으로
뜨겁게 달아올라야 할 이 8월에
기어코 찬물을 끼얹어대고있거니

8월은 열기를 내뿜어도
겨레의 가슴엔 서리발이 인다
진심을 나누고 흥금 러치하던
그 가슴으로 분노의 절규 터친다

통일의 8.15를 마중가자

김 태 룡

흐르는 날과 날
그 어느 하루 한순간인들
통일을 잊고 산적 있었으랴만
이날이면 8.15 이날이 오면
더더욱 못견디게 가슴치며 불러보는
통일

해방의 기쁨과 감격이
분렬의 고통과 불행으로 뒤바뀌어
어언 70여년
해마다 세월따라 8.15는 왔어도
겨레가 그리도 애라게 원했던
통일의 8.15는 이 땅에 오지 않았다

통일을 부르고 부른다
끝끝내 보지 못한채
눈감고 떠나간 세대의 절통한 아픔
우리 세대의 머리우에
하얗게 재처럼 백발로 었혔고

쓸어버리라 쓸어버리라
쑥섬의 기슭을 치며
대동강도 갈기를 솟구쳐 웨친다
쑥섬의 푸른 숲도 천만민새 흔들며 터친다

뿌리가 있어 그 어떤 광풍에도
하늘을 치받든 거목 흔들리지 않듯이
쑥섬의 그 경륜 그 전통이 있어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의지
민족대단합의 뜻은 꺾을수 없거니

온 겨레가 한마음 한뜻으로
억세계 뭉치는 그 길에
통일이 있음을 민족의 살길 있음을
민족대단결이 조국의 통일임을
쑥섬은 말한다 8월의 쑥섬은 웨친다

문노니, 온 겨레가 바라는
통일의 대회합을 가로막는 이것이
남녘의 위정자들 떠드는 《진정성》이나
민족의 소망을 유린하는 그것이
침마르게 떠들어대는 《신뢰》이나

겨레의 넘원 역사의 부름을 외면한
가증스런 반통일무리들
이제는 누구나 다 안다
누가 진정으로 통일을 원하는가를
누가 기를 쓰고 분렬을 원하는가를

민족을 등진 역적들의 만고죄악
민족의 준엄한 심판 면치 못하리니
설사 8월에 우리 못 만나도
통일대회합장 기어이 펼치고
우리 뜨겁게 열싸안으리라

그날을 그려 그날을 믿어
겨레의 가슴은 세차게 높뛰다
반통일의 무리 쓸어버리고
겨레여 우리는 만나야 한다
통일대회합장에서 기어이 우리 만나자

후세들도 해마다 분렬의 나이 아프게 먹
나니

겨레여, 물어보자
그 어느 민족보다 피가 뜨겁지 못해
끓어진 혈맥을 이을 힘이 없어
우리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것인가
통일만세 터치지 못하는것인가

일떠서라 겨레여
노예의 쇠사슬 끊어내치고
해방의 노래 부른 8.15처럼
분렬의 장벽 허물어버리고
통일의 노래 부를 8.15를 마중가자

오, 백두에서 한나까지 통일만세 울려갈
그날로 겨레를 떠밀어주며
8월은 뜨겁게 달아오른다
삼천리가 용암처럼 끓어오른다



범죄의 진상은 가리울수 없다

얼마전 남조선의 야당들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백남기농민에 대한 경찰 폭력사건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신설을 통한 검찰개혁, 《전경련》의 《아버이런합》에 대한 지원의 흑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등 8개 사항을 합의하고 이것을 수용할것을 《새누리당》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집권세력들은 《싸드》배치로 정국이 혼란된 틈을 리용하여 지난 시기 저들이 저지른 온갖 반인민적죄악을 가리우기 위해 이러저러한 구실밑에 그것을 거부하고있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집권세력들의 이러한 책동은 그러지 않아도 《싸드》배치로 분노한 남조선인민들의 반《정부》투쟁기운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고있다.

각지에서 노동자들의 대규모파업투쟁이 벌어지고 《세월》호진상을 밝히려는 요구가 높아지는 속에 야당의원들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연장을 요구하여 이어달리기

식단식투쟁에 돌입하였으며 백남기농민이 입원한 병원을 찾은 야당의원들이 피해자가족들을 만나 《국회》에서 철저한 해명을 약속하는 등 보수집권세력들에 대한 압력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남조선 각계와 야당들을 비롯한 정계가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집권세력들의 반인민적죄악을 단죄규탄하고있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것이다.

알려진것처럼 2014년 4월 남조선에서는 온 세계를 충격속에 몰아넣은 《세월》호침몰사건이 벌어졌다. 꽃망울도 피우지 못한 수백명의 어린아이들이 수장된 《세월》호 사건은 특대형반인륜죄악으로서 그 진상을 밝히고 그에 따른 주도자처벌도 있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남조선보수집권세력들은 저들의 반인륜적죄악을 가리우는데만 급급하면서 《세월》호사건의 진상규명을 사사건건 가로막아나섰다.

인민들의 거세찬 항거에 못이겨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를 내오고 진상규명을 한다고는 하였지만 그것은 허울뿐이고 눈가림의 민심기만국이였다. 《세월》호진상규

명에서 가장 큰 증거물인 《세월》호의 인양을 지금까지 못하고 날씨가 나쁘다는 당치않은 구실밑에 아직도 제대로 하지 않고있는것은 이에 대한 단적실례이다.

이런 속에 1년 6개월의 여유밖에 없었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도 기한이 다 되어 지난 6월 30일 진상해명을 위한 제대로 된 활동 한번도 하지 못하고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에 분노한 남조선의 각계와 야당들을 비롯한 정계가 《세월》호를 인양하고 그 이후 진상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있지만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집권세력들은 그것을 연장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당치않은 구실밑에 그것을 거부하고있다. 이것이 과연 사람이 할짓인가.

문제가 더 있다. 백남기사건 《청문회》, 《전경련》의 《아버이런합》 지원 해명을 위한 진상규명 《청문회》 등은 경찰, 청와대와 정보원 등 남조선 《정부》의 주요기관들과 대기업체들이 관여된것으로서 20대 《국회》 초반부터 줄기차게 야당들이 주장한 요구사

를 비는 《석고대죄단식》이라는 해피마침까지 벌어져 사람들을 아연케 하였다. 또 집권여당의 대표라는자가 《존경과 감사》의 포시로 미군사령관을 등에 업고 해변쪽거리는 사진이 인터넷에 빠졌이 실려 《미국의 노래》, 《진정한 사대주의전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박근혜당의 친미사대행위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 통채로 떠맡기고 미국산 무기구매에 막대한 혈세를 탕진하고있는 데서도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박근혜는 권력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이전 《빠속까지 친미》라고 자랑하던 리명박역도 저어했던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 무기한 연기를 재검토하도록 내리먹혔을뿐 아니라 외교안보당국자들을 줄줄이 미국에 보내어 《마후교섭놀음을 벌리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직접 오바마를 찾아가 《북핵위협고조》니, 《안보환경변화》니 하며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를 애걸하다 못해 상전이 요구하는 남조선장점 미제침략군의 유지비분담금인 상요구를 받아들였다.

하여 2015년으로 예정되었던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 무기한 연기되고 남조선은 미국의 영원한 식민지, 군사기지로 더욱더 전락되게 되었다.

이런자들이 오늘은 또 미국을 위해 남조선인민들과 주변나라들이 그처럼 반대하는 《싸드》를 끌어들이려 하면서 야당의원들의 활동을 《사대주의》로 몰아대고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본사기자 박철남

항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수사가 진행중인 문제》이라며 입을 뻐 다시고있다.

검찰개혁을 통해 최근에 드러난 청와대 민정수석과 《새누리당》내부에서 터져나오는 온갖 부정부패행위들을 조사하자는 민심의 요구도 보수집권세력들은 우와 같은 론거로 부정하고있다.

남조선보수집권세력들이 사회각계와 야당들의 한결같은 요구를 무시하고있는데는 다른데 원인이 있지 않다. 각종 《청문회》가 진행되어 거기에서 진상이 밝혀지는 경우 그렇지 않아도 막다른 통치위기에 몰린 처지에서 더욱더 빠져나올수 없다는데로부터 남조선보수집권세력들은 이를 한사코 가로막고있는것이다. 아마도 보수집권세력들은 세월이 지나면 저들의 범죄행위가 후막속에 가리워질것이라고 생각하고있지만 그것은 오산이다. 보수집권세력들의 반인민적죄악을 결산하려는 민심의 요구에 의해 진실은 어느때든지 밝혀질것이다.

본사기자 서명수



남조선대결에 박근혜가 《포년전역애》

이란 핵합의를 둘러싸고 격화되는 모순과 갈등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핵문제를 구실로 실시하여오던 대이란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것을 발표한 때로부터 일정한 시일이 흘렀다.

알려진것처럼 지난해 7월 이란이 핵개발을 중지하는 대신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는 핵합의를 기록하였다. 이를 두고 당시 서방세계는 《국제분쟁해소의 본보기》라느니 하면서 요란스레 광고하였다.

그러나 많은 분석가들은 지난 시기 리비아와 이라크의 실례와 결부해 보면서 이란과 미국사이의 핵합의가 제대로 지켜질것인가 하고 의문을 표시하였다.

결코 공연한 위기가 아니었다.

미국이 이란과의 핵합의 이후 취한 태도를 보면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이란은 국방력강화를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자체로 개발한 란도미싸일들을 시험발사하였다. 주변국가로서 이것은 너무도 정당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란이 시험

발사한 란도미싸일들이 모두 핵탄두를 탑재할수 있는것들이며 이것은 곧 엔겔에 대한 엄중한 위협 반이라고 하면서 불에 덴 황소처럼 날뛰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자기 나라가 어떠한 핵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데 대하여 미립중하였으며 또 자국의 미싸일가운데 핵탄두를 장착할수 있도록 설계되었는 없다고 강력히 반박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막무가내로 이 문제를 유엔에 상정시켜놓고 지난해 12월 유엔전문가위원회로 하여금 이란의 란도미싸일발사 시험이 유엔결의에 위반된다는 《결의》라는것을 만들어내게 하였다.

그후 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준비한다는것을 공개하면서 이란을 위협하던 끝에 미싸일개발활동에 관여하였다는 리유로 개별적인 이란인들과 11개의 기업을 제재대상으로 포함시키는것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제재를 발동시켰다. 이란에 대해 이미 실시하였던 제재를 해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제재를 가하고있는 미국의 표리부동한 행동을 보면서 국제정세분석가들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고 하면서 이란의 국력을 억제, 약화시키고 저들에겐 순종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미국의 본심은 어데 갈데가 없다고 일치하게 평하였다.

이런 속에서 올해 1월부터 이란과 미국을 위수로 하는 서방사이에 맺은 핵합의가 그리행을 위한 실천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나 그것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있다.

지금 미국은 이란의 원유수출을 일정하게 보장하는것으로 마치고 저들이 핵합의를 지킨다고 표방하고있지만 그것은 눈감고 아옹하는 격이다. 그그런것이 미국이 이러저러한 구실밑에 금융부문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도수를 늦추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화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런것으로 하여 얼마 전 이란대통령은 TV연설을 통해 이란과 미국사이의 《핵합의는 일종의 시험이었다. 만약 미국이 믿음과 정확성을 갖고 핵합의를 시행해 현재 이란이 겪고있는 각종 장애물과 지연조치들을 완화했다면 란국은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리에 부합하는 다른 주제들도 논의할수

있었을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은 《약속을 정확히 지키지 않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이에 앞서 이란의 최고지도자는 《《핵합의가 시행된》 지난 6개월동안 이란국민의 삶에 끼친 효과는 도대체 무엇인가.》고 반문하면서 《미국이 지역문제를 협상하자고 요청하는데 핵합의의 경험은 그것이 치명적독약이 될것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더이상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미국을 신뢰할수 없다.》며 이란을 약화시켜보려는 미국의 책동에 강한 분노를 표시하였다.

정세분석가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 미국의 2중적태도로 하여 이란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맺은 핵합의는 앞으로 더 큰 난관에 봉착할것이라고 예견하고있다.

앞에서는 감람나무가지를 흔들고 뒤에서는 날창을 들이대는 미국의 행동은 저들의 눈에 거슬리는 나라들의 무장을 해제하고 그 나라들을 손쉽게 틀어쥐겠다는 그들의 본심은 어제도 오늘도 변하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응철

이런것이 사대매국행위

